

尹 “선대위 와달라” 러브콜에… 김종인 “후보가 결정해야”

윤석열, 김종인 출판기념회 참석
“정치개혁·국가대개조 필요 시점
김종인, 역할 해야할 때 오고있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총괄선대위원장 합류를 두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선대위에 합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15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 - 김종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김 전 위원장에게 간접적으로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다.

윤 후보는 이날 축사에서 “정치 개혁 뿐만 아니라 국가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에 또 다시 김 전 위원장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라며 “어려운 정권교체와 국가 개혁의 대장정을 벌여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에 쌓아 오셨던 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 세번째)가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서울호텔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왼쪽 네번째)과 악수하고 있다.

/ 뉴시스

률으로 저희들을 잘 지도해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서도 선대위 구성 문제가 부담스러운 듯 관련 질문에 “지켜봐달라”며 답변을 피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요청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도와줄 수도 있다”며 총괄선대위원장장을 맡을 계획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 구성에 대한 문제는 후보 본인의 생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짜여지면 그때 가서 내가 판단하는 것인지, 내가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확신이다. 지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은 맡게 될 것 같으면, 선거를 책임지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전권과 실무형 선대위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아픈 기억이 있는 만큼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넓고 강한 권한이 보장돼야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제21대 총선을 약 2주 남기고 황교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총괄선대위원장에 맡았다. 당시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관련 막말을 하자, 김 전 위원장은 제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당 윤리 위원회는 ‘탈당 권리’ 징계에 그쳤다. 결국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거대 여당 의석을 내주며 대패 했다. 김 전 위원장도 지난 12일 CBS라

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권을 맡한 적은 없지만 허수아비로 갈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캠프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언급하기 민감한 문제”라면서 “캠프라는 곳이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고, 김 전 위원장님이 오시더라도 워낙 베테랑이고 잘 하시니까 원만하게 잘 이끄실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김 전 위원장은 공천이 다 된 상태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은 맡았기 때문에 힘을 가지기도 힘들었다”며 “김 전 위원장이 우리나라에서 정치의 판을 제일 잘 읽고 상대편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이른바 물타기에서 김 전 위원장을 쫓아갈 사람은 없기 때문에 선대위에 합류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년의 고통 공감·위로하고 들어줄 것”

이재명 “저성장 사회서 기회부족, 도전보다 절망·위기 느끼는 시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MZ세대와의 소통을 늘리는 가운데 청년세대의 고민에 대해 “근본적 해결은 서서히 하더라도 현재 문제에 대해 그들이 직접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들어라도 주는 노력을 저부터라도 좀 더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주말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일정을 소화한 매터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에서 느낀 점을 밝히며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괴로운 것도 힘든 일인데, ‘외롭다. 나 버려진 거 아니냐’고 생각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는 고도성장 시기를 살아오면서 기회가 많은 세상에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실제로 많은 성취들을 이뤄냈다”며 “청년세대들은 저성장 사회에 살게 되면서 기회 부족과 경쟁은 격렬하고, 도전보다는 정말 절망과 위기를 더 많이 느끼는 시대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우리는 청년문제에 대해

정말로 그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고, 개선은 못 할지언정 공감하고 들어주는 노력까지 절실히 했는지 최근 깊이 반성하고 아팠다”며 “을들끼리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끼리 경쟁하고 마치 오징어게임 한 장면처럼 편을 나눠 누군가가 제거돼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식으로 극한 투쟁 벌어지는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확충할 것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렇게 유용하고 서민들에게 도움 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왜 삭감해서 절망감을 주느냐는 이야기가 상당히 있다”며 “어느 지역 가면 가급적 해당 지역화폐를 구매해서 사용하려 하는데, 올해 예산 다 떨어져서 온누리상품권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이 따뜻한 방 안 책상에서 정책 결정하는 것이 현장에서 멀게 느껴진다 생각하고, 서민은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에서 체감해 보길 바란다”며 “현장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들 삭감하고 이런 것들은 깊이 반성할 필요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의 기자 pathfinder@

文 “FLNG, 모잠비크와 우호협력의 상징”

〈부유식 해양 LNG 액화 플랜트〉

文 대통령, FLNG 출항 명명식 참석
LNG생산·저장·출하 등 해상서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FLNG(부유식 해양 LNG 액화 플랜트) 출항 명명식에 참석했다. 김정숙 여사와 함께한 일정에서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FLNG 건조에 협업한 여러 국적의 기업 관계들의 노고에 대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조선소가 건조한 F LNG가 모잠비크 북부 해양에서 가스 생산 작업에 활용되는 만큼 ‘양국 간 우호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어 “K-조선의 자부심과 국제 경쟁력이 양국 간 에너지 및 조선·플랜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7년 6월 약 25억 달러에 수주해 건조한 FLNG는 원거리 해양에 있는 가스전으로 이동, 해상에 떠 있는 상태로 LNG를 생산하고 저장·출하까지 할 수 있는 해상 이동식 복합기능 플랜트이다. 이번에 ‘Coral-Sul(코랄 솔)’로 명명된 FLNG는 전 세계 4번째이자 모잠비크 가스전의 첫 번째 FLNG다. 재원은 길이 432m, 폭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필리프 뉴지 모잠비크 대통령 내외도 함께 열린 한-모잠비크 부유식 해양 LNG 액화 플랜트(FLNG) 출항 명명식에서 명명술을 자른 뒤 코랄호를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66m, 높이 39m의 크기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세계 최대 규모는 지난 2017년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FLNG ‘Prelude(프렐류드)’로 길이 489m, 폭 74m, 높이 43m 크기로 연간 350만톤의 LNG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전 세계에 있는 FLNG 4척(삼성중공업 3척, 대우 조선해양 1척) 모두 한국 조선소가 건조했다.

삼성중공업이 수주해 건조한 코랄 솔 FLNG는 한국가스공사가 10% 지분 참여한 모잠비크 제4해상 광구에서 2022

년부터 본격적으로 LNG 생산을 시작 한다. 매년 생산량은 우리나라 연간 LNG 소비량(2020년 기준)의 8.5%에 해당하는 340만톤 수준에 이를 예정이다.

이에 이날 출항 명명식에는 필리프 자신과 뉴지 모잠비크 대통령 내외도 함께했다. 모잠비크 정상이 한국을 찾은 것은 8년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초의 아프리카 정상 방한이기도 하다. 지난 14일부터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대통령, 대선 엄정한 중립 지켜주길”

文 대통령 축하 난 받은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 받았다. 두 사람은 대통령의 안부와 축하말씀 등을 서로 전하며 30여 분 간의 비공개 면담을 마쳤다.

이 수석은 정무비서관과 국민의힘

당사에서 2시께 윤 후보와 만나 인사를 나눴다. 윤 후보는 권성동 비서실장과 이양수 수석대변인과 함께 이 수석을 맞았다.

난에 달려 있는 문구엔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수석은 윤 후보에게 “대통령께서 축하말씀을 꼭 드리고 체력 안배를 잘 하면서 지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윤 후보는 “감사말씀을 전해드리고 (대통령님과) 여사님하고 두 분 다 건강을 잘챙기시라고 전해달라”고 화답 했다.

약 30여분 간 비공개 회담을 마친 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후보께서 대통령에게 이번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청을 했다”며 “이철희 수석도 대통령께서도 대선에 대한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